엔터테인먼트

Entertainment

임성한 작가 '보석비빔밥' 캐스팅 완료 촬영 돌입

임성한 작가의 MBC 주말특별기획 '보석비빔밥'(극본 임성한, 연출 백호민)이 캐스팅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촬영에 돌입했다.

10일 MBC에 따르면 '보석비빔밥'은 비취, 루비, 산호, 호박 등 보석 이름을 지닌 4남매 이야기를 다룬 홈 드라마다.

드라마에서 돈 많은 남자를 만나 '인생역전'을 꿈꾸는 큰딸 비취와 둘째 딸 루비 역은 각각 고나은과 소이현이 맡고, 검사를 꿈꾸는 큰아들 산호 역은 이현진, 싸움을 잘하는 고등학생 막내아들 호박 역은 이일민이 연기한다.

'보석비빔밥'은 '친구, 우리들의 전설'의 후속으로 다음달 5일 밤 10시50분에 첫 방송된다.

"강해진 덕만이 기대하세요"

'선덕여왕' 작가 김영현·박상연씨

최근 시청률 35%를 넘어서며 지상파 3사 월화드라마 중에서 최강자로 군림하고 있는 MBC 역사드라마 '선덕여왕'.

역사 책에서만 볼 수 있었던 선덕여왕을 드라마에서 새롭게 표현하고 있는 김영현(드라마 '대장금'과 '서동요')·박상연(영화 '공동경비구역 JSA'와 '화려한 휴가') 작가를 이들의 서울 여의도 작업실에서 만났다.

2000년 PC통신 나우누리의 퀴즈풀이 동호회를 통해 만나게 된 이들은 드라마 '히트' 등에서 함께 호흡을 맞춰 왔다. 이들은 매일 오후 7시 작업실로 출근해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선덕여왕'의 대본 작업을 하고 있다.

-시청률이 35%를 넘어서는 등 '선덕여왕'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정말 다행이에요. 사실 '선덕여왕'은 MBC 자체 제작인데다 장편인 50부작이어서 처음 시작할 때 부담감이 매우 컸는데 이렇게 시청자들이 많이 사랑해주시니 감사하네요.(김)

-'선덕여왕'의 인기 비결은.

▲'미실의 캐릭터를 강하게 가져간다'는 기획 의도를 시청자들이 잘 받아주신 것 같아요. 신라라는 고대사, 미실과 선덕여왕이라는 생소한 인물에 대해 시청자들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으려면 캐릭터를 강화시켜 그 인물을 통해 신라를 그려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미실이라는 인물을 표현하기 위해 공을 많이 들였어요.(김) 사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해 만주를 잃었다며 신라에 대해 거부감을 가진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더욱

> "여성 악인 새로운 캐릭터 미실 통해서 만들고 싶어 장희빈 이젠 그만 나와야죠"

인물 중심으로 드라마를 이끌고 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또 미실을 통해 여성 악인에 대한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고 싶은 욕심도 있었고요. 이제 장희빈은 그만 나와도 되지 않나요?(웃음)

-드라마 '선덕여왕'은 '어출쌍생 성골남진'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이 아이디어는 어떻게 생각한 것인가.

▲삼국사기에 '성골남진이어서 여왕이 나왔다'는 말이 있어요. 남성이 없어서 여성이 왕이 됐다는 점은 그 시기에는 일종의 저주였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기에 천명과 덕만 중 누가 장녀인지에 대해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기록이 다르니 혹시 둘이 쌍둥이가 아니었을까라고 착안한 것을 연결시킨 게 바로 '어출쌍생 성골남진'이에요.(김)

-사이트에 들어가면 네티즌들끼리 벌써 다음주 시놉시스를 공유하고 있다. 스포일러 때문에 마음 고생이 있을 것 같다.

▲김이 많이 새죠. 스포일러들이 너무 많이 돌아다녀서 속상해요. 사실 이전엔 그 사이트에 자주 들어갔는데 최근엔 스포일러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안 들어가요. 못 보겠더라고요. 얼마 전엔 천명공주가 죽는다고 분석 기사까지 나와서 당황했어요. 그 부분은 아직 방송도 안 됐는데 말이죠.(박)

-작가 입장에서 특별히 애정이 가는 캐릭터는 누구인가.

▲'우리 덕만'이죠. 아직은 덕만이가 덜 여물었지만 강력한 미실에 대적할 수 있도록 덕만이를 강하게 키울 거예요. 지금까지를 시즌 1이라고 한다면 덕만이가 강해지는 25회부턴 시즌 2라고 할 수 있어요.(박)

-이제 50부작 중 절반 정도 왔는데 이야기가 어디까지 진행될지 궁금하다.

▲덕만이가 선덕여왕이 된 뒤 죽을 때까지의 전체 일생을 다룰 계획이에요. 저희가 봤을 때 선덕여왕의 업적 중 가장 큰 것은 김유신과 김춘추라는 인물을 발굴했다는 점이거든요. 거기까진 가야죠.(박) /연합뉴스

MBC 월화드라마 '선덕여왕'의 김영현(왼쪽)·박상연 작가.

'드림'서 악랄한 사채업자 고창석

무명의 세월 20년만에 주목할 만한 조연으로

그가 보인 것은 지난해 영화 '영화는 영화다'에서부터였다.

졸지에 진짜 깡패를 데리고 액션 영화를 찍게 된 속물형 인간 봉 감독의 모습은 소심한 현실주의자의 전형을 보여주며 웃음을 선사했다.

그런 분위기는 올해 영화 '인사동 스캔들'로 이어졌다. 위작 전문가로 등장한 그는 우스꽝스러운 차림새에 "이미테이션에도 레베루가 있어"라는 말로 폭소를 자아냈다.

그는 지난달 MBC TV '친구, 우리들의 전설'에서는 카리스마 작렬하는 뱃사람으로 등장해 180도 변신한 모습을 보여줬다.

그러더니 요즘은 SBS TV '드림'에서 악랄한 사채업자 역을 맡아 눈길을 끌고 있다.

배우 고창석(39)이 올해 주목할만한 조연으로 떠오르고 있다.

부산 출신인 그는 대학 1학년 때 탈춤과 사물놀이에 눈을 뜨면서 '예인'의 길에 접어들었다. 마당극과 노래극을 각각 5

년씩 하고 연극과 뮤지컬 무대에서 활동하던 그가 지금처럼 영화와 드라마에서 주목받기까지는 20년이 걸렸다.

현재도 극단 사다리움직임연구소의 단원인 그는 연극을 하려고 낮에는 연기를 하고, 밤에는 공장에서 일하는 '가난한 예술인'의 삶을 오래도록 살았다.

"저 나름대로는 연극 쪽에서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은 문제가 아니었어요.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지금이라고 그다지 상황이 좋아진 것은 아니에요. 조연배우로 산다는 것은 여전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지난해부터 영화와 드라마에 많이 나오니까 제 상황이 많이 좋아졌다고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웃음)"

한때는 너무 힘들어 연기를 관둘까 생각하기도 했다. 점쟁이가 '이 길이 아니다'고 하면 바로 연기를 때려칠 생각이었다.

"5년 전 쯤인가 점을 보러 갔더니 점쟁이가 '넌 뭘 해도 힘들다. 하던 대로 해라'고 하는 겁니다.(웃음) 내 참, 그 점쟁이 생각할수록 화가 나는데 어찌 됐든 그만두라는 말을 안 해서 계속 연기를 하고 있어요. 배우는 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기 싫다고 안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운명이라는 말은 거창하고 팔자 같아요."

2005년 영화 '친절한 금자씨'에서 금자에게 불법으로 총을 만들어주는 기술자로 출연하며 영화에 데뷔한 그는 이후 '괴물'과 '야수' 등의 단역을 거쳐 2007년 '바르게 살자'에서 첫 조연을 맡았다. 그는 개봉을 앞둔 '부산', '이태원 살인사건', '의형제' 등 3편의 영화에서도 인상적인 연기를 펼쳤다. /연합뉴스